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

○ 매체 : 국제뉴스(2024. 3. 23.)

○ 제목 :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 셰프 특기활용 사회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 셰프 특기활용 사회봉사

조리기능사 자격 보유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 관내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식사 제공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 셰프 특기활용 사회봉사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삼)는 오늘 셰프 특기를 활용하여 관내 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받은 요리사(호텔 주방 근무)가 사회복지시설인 예티쉼터 요청으로, 쉼터 거주 장애인들에게 점심메뉴로 자장면을 요리하여 제공했다.

이날 자신의 특기를 살려 사회봉사를 이행한 대상자 A씨는 “비록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회봉사를 하지만, 제가 만든 자장면을 맛있게 드시는 장애인들을 보고 작은 기쁨을 느꼈고, 제가 잘하는 분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어 만족감도 크다.”고 말했다.

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자신의 요리 기술을 활용해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싶다는 의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상자의 특기를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반 국민과 기관·단체 등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경주준법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